마이크로팩토리사업단 이낙규 단장에게 듣는
첨단 수출기업 지원책

초소형 공장으로 전방위 수출기업 지원을 펼치다

올해 초 각계 전문가들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 워킹 프로토타입(Working Prototype) 제작, 제조 창업자 지원 및 교육에 특화한 마이크로팩토리 사업단이 출범했다. 해외 바이어가 제품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 작동하는 시제품을 제작해 주고, 전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로 기업의 수출을 이끌어 줄 마이크로팩토리사업단. 이낙규 단장을 만나 주요 사업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Q. 마이크로팩토리사업단의 역할을 소개해 주세요.

마이크로팩토리란 첨단 제조 장비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초소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출기업에 시제품을 제작해 주는 것이 마이크로팩토리사업단의 주요 역할입니다.

즉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 해외 바이어 미팅 시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마이크로팩토리사업단의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6월, 사업단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장은 구축 중에 있으며, 시제품 제작 지원은 생기원 내 장비를 이용하거나 한양대학교 제조혁신기술원의 협력을 받아 진행 중입니다.

Q. 이번 사업단의 시제품 제작이 기존 기술지원 사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 모형 제작과 달리 작동 시제품(워킹 프로토타입), 즉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기술이전 형태라기보다는 기업에서 제작을 요청하면, 워킹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주는 형태입니다. 대상이 수출형 기업이라는 점도 다릅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바이어와 만나 장비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과 글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제품이 있다면 설명이 더욱 쉬워지고, 해외 판매에도 큰 효과가 있겠죠. 또한, 제품 출시 및 사업화 이전에 시제품 제작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품 설계 및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원가 절감과 새로운 응용 분야를 창출하는 등 제조 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글로벌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제조 창업자 지원 사업에 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글로벌 중소기업 수출 지원은 부품 무역 분야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기관과 협력해 제품화할 아이템에 대한 진출 전략을 확보한 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생기원 해외사무소와의 협력은 물론, 더욱 전략적인 진출을 위해